

전남 동부권 사랑의 온도탑 덮혀 주세요

여주시청 앞 야외무대에서 제막식
1월까지 113억9천만원 모금 목표
기업·기관 등 참여 성금 기탁식



전남사랑의열매는 여주시의 복지사업을 위한 배분지원금(신청사업, 차량지원사업, 월동난방비사업, 복권기금사업) 3억 5377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정기명 시장은 "사랑의 온도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올해도 사랑의 온도 100℃를 달성해 한분 한분이 내어준 따뜻한 손길이 우리 지역 곳곳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은 '기부로 나

차·음악과 함께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보성군 '붓재 티 작은 음악회'

보성군이 연말을 맞아 '붓재 티(TEA)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작은 음악회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장 밖으로 드넓은 차밭이 펼쳐진 붓재 그린다향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와 아름다운 선율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음악회는 12월 매주 토요일(7·14· 21·28일)과 크리스마스(24·25

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올해 마지막 한 달을 장식할 음악회는 관객들에게 친숙한 K-pop 버스킹 공연과 '보성소리창극단'의 이야기가 있는 퓨전국악 공연, '다카포 아리아'의 클래식 공연, '비바살롱'의 크로스오버 팝 음악 감상 공연 등을 선보인다.

특히, 24일인 크리스마스 이브와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캐럴과 추억의 팝송을 보성소리의 국악과 비올라, 첼로, 성악의 협연으로 클래식 음악으로 들을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순천시 "시내버스 따뜻하게 기다리세요"

승강장 바람막이·발열의자 설치

순천시는 겨울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바람막이는 투명한 비닐 커튼으로 제작되어, 칸막이가 없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추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대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람막이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한, 시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과 추위에 취약한 외곽지역의 승강장 263개소에 발열의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발열의자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동되며, 자동 센서를 통해 대기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에도 시민들이 따뜻

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열의자와 바람막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새마을회·부녀회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활동

곡성군 새마을지도자삼기면협의회와 부녀회에서는 지난 3일 곡성군새마을지도자회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회원 2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동리 소공원에 철쭉 200그루와 팬지 500송이를 식재하여 산뜻한 화단을 조성했다. 아울러 마을 내 방치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삼기전 정화 활동을 실시해 쾌적한 마을환경 가꾸기에도 힘썼다. 김영중 곡성군 새마을지도자 협회장은 "앞으로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해 보다 더 나은 마을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고흥군 해상풍력단지 개발 본격화

산자부 적합입지 발굴 공모 선정
공공주도형 개발 사업 본격 착수

고흥군의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흥군은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군이 협업을 통해 해상풍력단지의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 발굴을 목표로 진행되며 한국전력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등이 참여한다. 사업을 통해 예비 사업지구의 검증과 풍력 자원 계측을 진행하고 2GW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35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에 고흥군은 우선적으로 ▲지역산업 연계 개발계획 수립 ▲수산업-해상풍력 공존 연구 ▲전력

계통 확보 방안 ▲발전단지 내 규제 검토 등을 추진하고 적합 입지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민간 발전사 중심의 사업 추진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지역 에너지산업 선도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농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 위기 극복의 중요한 산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앵커 기업의 육성과 국가산단 내 RE100 기업 유지를 통해 고용 창출과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전남 동부 해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주요 해상 풍력단지와 송전망 대부분이 경유하는 남해안 재생에너지산업의 허브에 해당한다"며 "타 시군과도 협력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6~11일 '올라! 부엔까미노 전'

신나라 작가 사진 50여점 전시

광양시가 6일부터 11일까지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올라! 부엔까미노 전(展)'을 개최한다. 올라! 부엔까미노 전(展)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신나라 작가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기록한 사진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는 기획초대전이다. '올

라 부엔 까미노(Hola Buen Camino)'는 '당신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한다',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라는 뜻을 담은 스페인 인사말이다. 스페인어 인사말을 기획초전전의 제목으로 정한 신나라 작가는 광양에도 세계인들이 찾는 돌레길길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2022년 47일간의 순례길 800km의 여정을 기록한 사진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듯한 생생함을 주며, 관람객들에게 자연이 주는 힐링과 순례길만의 울림 있는 목격함을 선사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무료이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다양한 마스크에서 소개되었던 산티아고 순례길 작품들을 광양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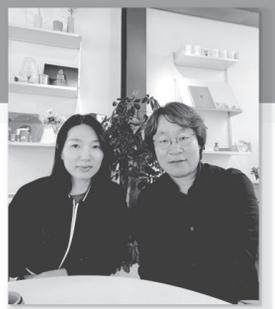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